



지적장애 특수학교 초등특수교사의 수학과 교육과정 차별화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이 해 란* · 박 창 언** · 양 진 숙***

A Narrative Inquiry Study on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s of Differentiating Mathematics Curriculum in Special Elementary School for Intellectual Disabilities

Lee, Hae-ran* · Park, Chang-un** · Yang, Jin-suk***

ABSTRACT

[Purpose] This study is designed to look into any feasibility of instructional adaptation at special intellectual disabilities special schools, which are currently facing difficulties in applying the curriculum due to various disability characteristics and learning level gaps of students. **[Method]** In this regard, the subject for this study is that what differentiation of learning and its curriculum from the viewpoint of elementary class teacher of special-education school for intellectual disabilities really is. To this end, this study has been exploring the experience of differentiating the learning and its curriculum of elementary special teachers by so-called "narrative inquiry method", who are working in the elementary special-education school for intellectual disabilities. **[Results]** The results are follows. First, the research participants reconstructed learning group in the light of educational needs and characteristics of students. Second, despite of reconstruction and differentiated application of curriculum according to learning group, difficulties of mathematics class for students with severe or multiple disabilities are raised, so the research participants realized the need of the improvement of the basic curriculum. Third, for the shortage of knowledge of math course and development of mathematics ability was found, the research participants tried to develop the professionalism of math course through the teacher community. **[Conclusion]** This research discusses the reconstruction of curriculum and learning environment, enhancement of the math course for the students with severe or multiple disabilities, and the way to improve the expertise of the course of teachers. Based on the discussions, it suggests the need of follow-up study about differentiation of curriculum.

Key Words : Intellectual Disability Special School, Elementary Special Teacher, Mathematics, Curriculum Differentiation

* 제 1저자,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Doctor's Course, Dept.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changunpark@hanmail.net)

Professor, Dept.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Master's Course, Dept.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9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현재 지적장애 특수학교의 수는 전체 특수학교 177개교 중 2/3에 달하는 122개교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구성 비율은 지적장애 학생이 53.4%로 가장 많으며, 16.4%인 정서행동 및 자폐성장애헤학생이 다음 순이다(교육부, 2019). 정서행동 및 자폐성장애헤 학생의 수가 지적장애의 1/3 수준에 달하는 높은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7개교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이들 중 상당수가 지적장애특수학교에 재학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최근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일반 학교에서 많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서 및 또래와의 관계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지적장애 특수학교로 전입하는 학생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이다(교육부, 2019; 박영근, 백상수, 2019; 조은주, 2014). 이로 인해 현재 지적장애 특수학교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에 지체를 보이는 학생들이 혼재함으로써 장애 특성과 정도, 학습 수준 등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김정연, 김은주, 2013). 따라서 현재 지적장애 특수학교는 학생들의 다양한 발달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 차별화가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

“교육과정의 차별화란 다양한 집단의 학생들에게 유용한 다른 지식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김두정, 1988:123)으로 수준별 교육과정, 수준별 수업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학생들의 특성과 학습 요구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교육부, 2015).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학교는 기본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중도·중복장애의 경우 시수 증감을 통해 교육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교육부, 2015). 본 연구에서의 ‘교육과정 차별화’는 대상 학생의 학습 수준 및 특성에 따라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을 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장애 특성 및 학습 수준에 따른 반 편성, 그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용과 교사 및 지원인력의 재구조화, 학습의 평가와 이에 따른 학습 집단의 재배치 및 피드백의 전 과정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이다.

특수학교 초등특수교사들은 지도하기 어려운 교과 중의 하나로 수학과를 꼽는다. 그 이유는 첫째, 단계성이 강한 수학과는 40분 동안 진행되는 수업에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학습 수준 차를 모두 반영하기가 어렵고, 둘째, 수학과에 대한 교수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셋째, 개별학생에게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이남호, 2004; 이병혁, 신현기,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과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및 비판능력을 신장시키는 기초학문이자, 타 교과를

학습하고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 교과로서 큰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중요 교과이다(교육부, 2015).

그런데 개인 간 능력 차가 큰 수학 교과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차별화할 할 교육과정의 선택, 집단 편성의 기준, 지원인력의 배치와 같은 제반 조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김대현, 김석우, 박소영, 2000). 즉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교육과정별로 분리된 교실에서의 수준별 이동수업, 복수 교사제 등과 같은 학습 집단 및 환경의 재구조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정해시, 2009; 김하림, 2011). 그러나 교육과정 차별화에 대한 동료 교사와 관리자의 인식, 학생 수준에 따른 지도교사와 특수교육 실무원의 배치, 문제행동 발생 시 책임 소재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이러한 시도가 학교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수학교에서의 수학과 교육과정 차별화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으로 그나마도 청각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특수학교에서만 주로 이뤄졌다. 권순우(2005)는 청각장애특수학교의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따른 수학과와 수준별 이동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학습 태도가 향상됨으로서 특수학교에서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채경은(2008)은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있는 다수의 중등교사가 수학과 수업을 수준별로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큰 수준 차, 시간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사의 충원,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 장애와 수준을 고려한 무학년제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현수, 명경미(2008) 역시 청각장애 특수학교 수학과 수준별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년 또는 학급 내의 동질집단 편성과 개별화된 수업 형태가 요구된다고 했다. 시각과 지체장애 특수학교에서도 많은 수의 교사들이 수학과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들 학교 또한 청각장애 특수학교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정유미, 2006; 김하림, 2011). 한편 함미애, 전병운(2018)은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학생별 목표 설정에 따른 수준별 수업으로 모든 학생의 수업참여를 위해 노력하는 중학교 신규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참여를 독려하는 교사 개인의 노력과 별개로 교육환경의 재구조화 없이 이뤄지는 수준별 수업이 학생의 배움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장애 영역과 상관없이 상당수의 특수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학습 수준의 격차, 현실적인 여건 부재로 인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동일 수준의 집단 편성을 통한 수준별 이동수업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선 연구 대부분이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감각장애, 지체장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준별 수업 실행에 대한 단순 실태조사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수학과 수업에 대한 동질집단 편성의 기준

과 형태,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나 문제 등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실제 수학과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사의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아 그들 내면의 이야기를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교육과정의 실천 주체는 교사이다. 교육과정의 차별적 적용이라는 현상 이면에는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적용과 수업장면에서 겪게 되는 내면적 고충과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실재(實在)한다. 따라서 지적장애 특수학교라는 특별한 맥락에서 수학과 교육과정 차별화를 실행한 경험과 그 경험이 교사로서의 삶과 학생의 배움에 어떤 의미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 경험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지적장애 특수학교 초등특수교사들의 수학과 교육과정 차별화 경험과 그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적장애 특수학교 초등특수교사들의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신념과 어려움을 살펴보고 교육과정 적합화의 실현 가능성에 집중할 것이다. 이들의 내러티브는 개인 간 차가 큰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실천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수학 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초등특수교사들의 교육과정 차별화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이다. Connelly와 Clandinin(2000)에 의하면 내러티브 탐구란 시간성, 사회성, 장소라는 3차원의 탐구 공간을 분석 틀로 하는 관계적 탐구로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 방법이다(홍영숙, 2019). 이에 본 연구는 시간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지적장애 특수학교라는 공간적 맥락과 그 속에서의 상호작용적인 관계 맥락에 주목하여 교사 개인의 경험을 탐구하고자 한다.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B시에 소재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H학교에서 수학과 교육과정 차별화를 실시한 초등특수교사 두 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H학교는 초·중·고·전공과로 구성된 비교적 큰 규모의 지적장애 특수학교로 현재 다수의 중도·중복장애 학생들과 최근 3년간 일반초등학교에서 전입한 학생들 간의 학습 격차로 인해 교육과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먼저 김 교사는 19년 차의 중 경력

교사다. 2003년 B시 D교육청의 특수학급 연합캠프에서 연구자와 처음 만나, 학교와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공유하며 18년째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김 교사는 H학교가 세 번째 특수학교로 이전에 근무했던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도 수학과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 바 있다.

민 교사는 교육경력 12년 차로 2008년 B시 S교육청 특수학급 자율장학협의회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4년 차의 저경력 교사였던 민 교사는 연구자와 특수학급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특수학교 경험은 H학교가 처음으로, 특수학급에서 학생들의 수학교과로 개별화교육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특수학교 또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과 수업에 관심이 많은 민 교사는 현재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있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들은 평소 특수교육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4년째 학교 밖 전문적 학습공동체에서 교육과정과 배움 중심수업을 함께 고민하며 실천해왔다. 이러한 관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의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홍영숙, 2019). 본 연구에 앞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주제와 목적, 연구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과 학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다(<표 1>참조).

<Table 1> Reserch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Gender	Age	Special Education Career	Work experience of intellectual disability special school	Class experience by level in intellectual disability special school	Education
Kim	F	49	18.0	5 years	2 years	Master of Special Education
Min	F	38	11.0	N/A	N/A	Curriculum Master's degree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3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이뤄졌다. 자료 수집은 주로 면대면 인터뷰와 연구자 저널 쓰기 등으로 이뤄졌으며, 보조 자료로는 교사들의 기록과 수학과 수업 협의록 등이 사용되었다. 경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수교육실무원과 자원봉사자와의 비공식적 면담도 추가하였다.

면담의 주제는 참여자들이 수학과 교육과정을 차별화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것들로, 수학과 교육과정 및 교과에 관한 관심과 이해, 수학 수업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실행전략과 교수 실천 노력, 실천과정에서 느낀 교사의 책무성과 한계, 수업을 통한 학생과 교사로서의 성장 등에 관한 것이었다. 수업 협의는 주로 주 1회 1시간씩 진행된 전문적 학습공동체 시간과 회의가 없는 일과 후 시간에 이뤄졌다. 개인 면담의 경우 연구 기간 동안 참여자별로 3회씩, 1회에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간단한 대화는 글로 기록하였고, 모든 면담은 녹음 후 전사하여 보조 자료와 함께 분석되었다.

기존에 형성되어온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연구자의 신념과 가치가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경험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자 노력했다.

3. 자료 분석 및 타당화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 경험에 대한 ‘관계적 탐구’로, 코딩 위주의 세세한 분석이 연구의 본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경계한다. 따라서 가능한 관계적 맥락에 근거한 직관적이고 통합적인 분석을 권한다(홍영숙, 2019). 이에 교사들의 경험을 분절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기보다는 Connelly와 Clandinin이 제시한 ‘3차원 탐구 공간: 시간성, 사회성, 장소’ 내에서 총체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하였다(홍영숙, 2019).

수집된 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맥락에 기초하여 참여자들의 내러티브를 줄거리로 구성하였다. 반복적인 읽기 과정을 통해 ‘수학 교과, 교육과정, 전문성, 배움, 성장, 공동체’라는 핵심 키워드를 찾고, 이와 관련된 문맥들을 의미 단위로 묶은 후, 이들을 포함할 수 있는 상위개념으로 범주화하였다. 연구텍스트와 현장텍스트를 비교하며 경험의 의미와 줄거리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해석을 명료화하고자 했다. 최종적으로 참여자들의 동의를 거쳐 의미 있는 내러티브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내러티브 연구로서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의미를 해석하고 핵심범주를 유목화하는 과정에 교육과정 전공 박사과정 2인, 수준별 수업의 경험이 있는 20년 차 특수교사 1인에게 검토를 받았다. 또한 공동 연구자들과의 교차 검토 및 연구 참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연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꾸준히 진행되었다.

Ⅲ. 연구 결과

1. 안전한 배움의 공간 만들기 : 학습 집단의 재구조화

연구 참여자들은 지적장애 특수학교에 근무하면서 교사로서의 책무성에 대해 깊은 성찰의 태도를 보였다. 고경력에 진입하는 김 교사는 경력이 높아지고 경험이 늘수록 ‘교사로서 산다는 것’에 대한 고민 또한 깊어진다고 말한다. 점차 중도·중복화 되는 특수학교 상황은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해서도 갈등과 고민을 던져 주었다. 학생들과 맞지 않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동료들을 보며 자신의 수업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아졌다. 그러나 교사의 역할이 학생의 성장을 이끄는 것이므로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과정의 적용과 수업 실천은 교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학생에게 의미 있는 교육은 무엇이며, 교사는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자문한다는 민교사가 올해 처음 특수학교로 전입하여 맡게 된 학급은 학생들의 장애 정도와 특성의 차가 매우 컸다. 특수학급과는 달리 같은 교실에서 개인 간 차이가 큰 아이들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수업 상황은 교사로서의 한계를 느끼게 했다.

우리 반의 구성은 극과 극이라, 교육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해요. 특히 수학 수업을 하면서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나를 느낄 때면 교사로서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 지금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 반 아이들 모두에게 의미 있는 수학 수업을 할 수 있는가예요(2019. 4. 15. 민교사 면담).

각자가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달랐지만, 참여자들은 학생의 배움을 중심에 둔 교육과정 실행이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학교는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기초한 수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자들이 처음 한 일이 교육적 요구와 특성에 따른 학습 집단의 재구조화이다. 학생마다 선호하는 학습 분위기가 있고, 장애 학생의 경우 이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다. 참여자들은 학생 개개인의 정서적 반응, 매체 반응 특성 및 선호 매체 등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집단을 재편성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배움의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아이들 대부분이 자신을 말로 잘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표정과 몸짓에서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성장한다는 건 그만큼 경험의 폭이 넓어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경험을 시도한다는 건 함께 하는 사람이 믿을만한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교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고, 교사는 신뢰로운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 4. 8. 김교사 면담).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해 교사뿐 아니라 특수교육실무원 및 자원봉사 등 지원인력의 재배치도 함께 이뤄졌다. 이는 보다 원활한 수업 지원과 더불어 학생들을 주의 깊게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다. 관찰을 통한 참여자들의 생각은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점검되고, 학생의 변화를 위한 피드백으로 연결되었다. 학생들의 수업 과정을 지켜본 이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이 학생들의 수업참여율을 높이고 느끼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2019. 9. 25. 특수교육실무원 면담). 또한 이를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배움과 성장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2019. 9. 24. 특수교육과 4년 자원봉사자 면담).

연구자: 이번에 00이가 새로 전학을 왔는데, 반 배치는 어떻게 하지요?

민교사: 개별화자료를 보니 이미 세 자리 이상 수도 알던데요. 아무래도 우리 반(공통)으로 배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이가 좀 민감한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해요.

김교사: 지금 현재 2반(기본) 아이들 수가 제일 적으니까 그 반에는 자원봉사선생님을 두고, 실무원 선생님은 1반으로 보내는 건 어떨까요? 아무래도 환경도 낫설고 예민하면 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연구자: 우리 반은 일단 네 명밖에 안 되니, 그렇게 조절해 보지 뭐. 민선생님 생각은 어때요?

민교사: 전학생은 늘고... 한 반만 더 있으면 좀 나올 듯도 한데...(2019. 6. 10 수업 협의록 발췌)

기존 우리 반의 경우 수준차가 극과 극이어서 수업을 할 때 제재나 내용도 수준을 나눠서 하느라 어려웠어요. 그런데 수준별로 받은 재편성하고부터는 아이들 수준이 비슷해서 수업 준비와 진행이 원활해지고, 피드백도 적절한 시기에 잘 이뤄지는 것 같아요 (2019. 9. 16. 민교사 면담).

학습 집단의 재구조화를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가 늘고, 교사 역시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구 참여자들은 느끼지만 어제와는 다른 그 작은 변화들을 ‘배움’이라 말한다. 참여자들의 성찰적 태도는 개인적·실제적 지식을 형성함으로써 ‘실천하는 교사로서의 이야기’를 만들었고, 연구자의 성찰하는 태도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홍영숙, 2019).

2. 성장을 위한 배움 공간 만들기 : 교육과정의 재구조화

현재 지적장애 특수학교에는 지적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장애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자들은 그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서는 각자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기초한 수업을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학생누가 발달 기록과 학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확보한 학생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 특성과 교과 발달 상황을 확인하고, 실제 수학 수업 중에 보이는 학생들의 반응과 태도를 관찰·기록하였다. 단계성이 강한 수학 교과의 특성으로 인해 교육적 요구와 적용해야 할 교육 과정이 학생마다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은 학습 집단에 맞게 공통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적용하였다.

김교사가 맡은 그룹은 중증의 정서장애 및 자폐성 장애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중증이라는 용어 하나로 표현하기에는 학생들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는 매우 개별적이다. 김교사는 이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적용하고자 노력했다.

일반인들에게는 이 아이들은 그냥 중증장애를 가진 비슷한 아이들로 보일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장애 특성이나 개개인에게 시급한 문제들이 모두 달라요(2019. 8. 21. 김교사 면담).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의 중도·중복 장애학생의 증가는 참여자들에게 있어 수학 교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끔 했다.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경우 수학능력의 발달 단계가 2세 이하로, 표준 보육 과정조차 적용이 힘든 아이들에게 기본교육과정은 그 수준의 불일치로 인해 적용이 어려웠다(이숙정, 2013). 수학적 능력을 '교과'로 규정하여 가르치는 것이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 적절한가라는 그의 질문은 기존의 교과 개념을 광의로 확대하여 생활과 기능, 혹은 영역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숙정(2014)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우리 반 아이들의 수학 수업을 생각하면 큰 벽에 가로막힌 기분이 들어요. 최대한 아이들에게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수업을 하고 싶지만, 교육과정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해요. 이 아이들에게 과연 '교과'로서의 수학이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2019. 5. 20. 김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오늘 수업 협의 내내 김교사의 표정이 무겁다. 특수학교에서 흔히 '중증'이라 말하는 아이들을 맡은 김 교사는 오늘 자신의 수학 수업을 돌아보며 교사로서의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기본교육과정 수학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장 낮은 성취기준조차 도달하기 힘든 아이들에게 매주 3시간씩 주어지는 수학 시수가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수업이 수학 교과의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답답함이

그대로 물어난다(2019. 4. 23. 연구자 저널).

민교사가 올해 맡은 학급은 발달 특성과 교육적 요구의 차가 매우 큰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단일한 교육과정으로는 도저히 수업이 불가능하다.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병행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규정을 실제 현장에서 구체화하기란 어려운 문제이다(교육부, 2015). 더욱이 같은 공간에서 세 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동시에 적용하여 수업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가 수학과 교육과정 차별화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제가 느끼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너무나 경직되고 자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교육적 요구의 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특수학교는 기본교육 과정을 적용하는 곳이라는 생각도 이제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2019. 5. 11. 민교사 면담).

민교사는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그룹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학습의 성취 수준은 생각보다 차이가 컸다. 100까지 읽고 쓰는 학생에서부터 곱셈구구와 나눗셈의 기초를 공부해야 하는 학생까지 섞여 있다. 이런 상황은 다른 그룹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렇듯 학생들의 요구와 특성이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그들이 만든 세 그룹만으로는 모든 학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그룹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 전체가 함께 참여한다면 이런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2019. 9. 9. 김 교사 전 문적학습공동체).

2015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자율화를 제안하고 있다(교육부, 2015). 특수교육의 특수성으로 인해 보다 높은 수준에서의 자율화를 원하면서도 정작 그 실행 정도는 미미한 상황에서 참여자들의 수학과 교육과정 차별화는 교육과정 자율화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신서영, 박창언, 2018). 그러나 이는 몇 몇의 노력이 아닌 학교 수준에서 함께 할 때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 수학과 교과 전문가 되기 : 학습하는 공동체 형성

수학과 교육과정 차별화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교사의 협력에 있다(부산광역시 교육청, 2019). 세 학급의 학생들이 섞여 그룹이 편성되다 보니,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다.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교육경험과

가치관들은 교사로서 살아온 각자의 삶의 이력과 생각의 틈을 메워 줌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를 인식하게 하였다.

예전에는 1학년 성취기준만을 중심으로 수업을 고민했는데,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전체 학년의 교육과정을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수업 자체에 대한 관점이 교육과정 전반으로 넓어지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협의하다 보니 뭔가를 같이 만들어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 교과, 수업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 피드백도 주고받는 이 과정들이. 공부하는 학습공동체가 실현되는 듯 느낌이라고 할까요? (2019. 9. 16. 민교사 면담)

이러한 협력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느끼는 수학 교육과정과 수학 발달에 대한 지식 부족은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한계로 작용했다.

수준별 수업이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넘어간다. 이전보다 수업 준비도 수월해졌고, 아이들 참여도 높아졌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수업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다. 장애 학생에게 있어 수학 역량이 무엇이고 그러한 역량을 키워 줄 만큼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나 역시도 이러한 사실을 매 수업을 통해 느끼는 중이다(2019. 4. 23. 연구자 저널).

참여자들은 교육과정과 수업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을 교사공동체를 통한 인식의 공유와 실천이라고 했다. 이들은 공동체를 통해 현행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수학과 역량과 교수 전략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고민했다. 또한 수학과 연수의 개설과 참여를 통해 수학 교과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수업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이들에게 있어 교사공동체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고 실천하는 가능성의 공간이자 성장의 공간이었다.

이번 수업을 계기로 수학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수학 교육과정과 연령에 따른 수학의 발달단계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을 비교해 가는 과정에서 현재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과정이 보다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실천들은 함께여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2019. 8. 21. 김교사 면담).

참여자들의 학교 밖 교사공동체의 경험은 학교 안 교사공동체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학이랑 놀자!’라는 주제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구성되었다. 수준별 수업을 진행하고 있던 참여자들과 고등학교 3학년에서 수학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를 포함해서 모두 다

섯 명이다.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도 수학과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다들, 기본교육과정 수학과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기본교육과정 수학과의 고등학교 3학년 성취기준은 공통교육과정 수학의 1학년과 비슷해 조금은 어려운 편이다. 초등학교의 중증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고등학교 3학년 중증학생들에게 이러한 교육과정의 적용은 힘든 일이다.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수학 교과에 대한 고민이 비단 초등의 것만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며 중증 장애학생들을 위한 수학교육의 의미와 수업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고 말하기도 했다(2019. 9. 9. 연구자 저널).

혁신학교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사실은 배움 중심의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있어 학습하는 집단으로서의 학교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부산광역시교육청, 2019). 참여자들은 전문적 학습공동체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배움과 성장의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수학과 교육과정 차별화 경험을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의 불일치, 그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교사로서의 실천적 노력이자, 성장에 대한 기록이라고 정리하며,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는 학교 문화가 자리 잡기를 소망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두 명의 초등특수교사의 교육과정 차별화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교사로서의 책무성, 교육과정에 대한 신념과 태도, 교육과정 적합화를 위한 실행 전략, 교사공동체를 통한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성이 강한 수학 교과의 지도를 위해서 교육과정과 물리적 환경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개인 간 차가 큰 학생들의 체계적인 수학교육을 위해 각 집단에 맞는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보조 인력 등을 재배치함으로써 교육과정과 물리적 환경을 재구조화하였다. 이를 통한 수준별 이동수업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높이고, 학습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과정 재구조화를 통한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 권순우(200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장애 영역과 상관없이 교육과정 차별화를 통한 수준별 이동수업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학교육을 통한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변화를 확인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특수교사가 이들의 성장을 파악하는 좋은 방안으로 수업 중에 실시하는 수행평가를 들고 있지만, 실제 실행 정도는 낮은 편이다(한경임, 한경화, 2019). 참여자들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대일 지원이 필요한 중증학생을 위해 지원인력을 재배치하였고, 참여자들은 이들의 도움으로 학생들의 반응과 변화에 대한 정보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다. 기존의 수업 구조에서 교사 1인이 감당해야 했던 일들을 학습공간의 분리와 지원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비춰 학생들에게 맞는 수업 및 평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재구조화와 함께 적절한 학습 환경의 조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교사공동체를 통한 수학 교과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참여자들은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와 수준 차를 반영한 수학 수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이남호, 2004; 이병혁, 신현기, 2004). 실제 참여자들은 수학 교과의 경우 단계성이 강해 한 교실에서 가르치기에 가장 어려운 교과라 인식하고 교육과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자 했으나 수학에 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에 4년째 이어온 학교 밖 교사공동체에서 실시한 수학과 공모형 연수와 아동의 수학 발달에 관한 자체 연수를 통해 수학 교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교사공동체의 경험은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형성에도 영향을 주어 수학 지식 함양을 위한 일상적인 노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공동체의 핵심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료성에 있다. 동료성에 기반한 학습공동체를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고, 상호 연찬의 과정을 통해 보다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로 성장해 간다(이홍우, 2014). 배움 중심의 학교 문화를 강조하는 혁신학교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것은 집단지성을 통한 교사의 성장이 곧 학생들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교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확대되어야 한다. 초등특수교사 양성기관인 초등특수교육과의 교과 관련 이수 과목이 교육대학의 20%에 못 미치는 현실은 전문성 부족의 태생적 원인일 수 있다(김희규, 2012; 안성우 외, 2014).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내실 있는 교과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 특수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모두 갖추기에 4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질 높은 교과 관련 연수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김희규(2012)에 의하면 특수학교 초등교사의 70%가량이 연수주체로 교수·학습 방법을 희망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B시 교육연수원에서 주관하는 공모형 연수제도를 이용하여 수학 교과 연수를 실시한 것처럼 공모형 연수제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행정적 지원을 제외한 강사 섭외 및 연수 진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 특히 전문성이 높은 우수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일선 교사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로 교육청 단위에서 우수강사 인력풀을 마련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 참여자들은 현행 기본교육과정의 수학과 목표와 내용이 중도·중복장애 학생에게 맞지 않고, 적용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수학적 능력에 대한 교과적 접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이숙정(2013)의 연구에서 특수교사들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교과 수업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수학과 차별화 수업에서 가장 중증반을 맡았던 김교사는 교사공동체에서의 자체 연구를 통해 현재 자신이 맡은 학생들의 수학능력 발달이 표준 보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조차 적용하기 힘든 경우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기본교육과정의 1~2학년군 성취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학생들이 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김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생들의 수학능력 향상을 위해 중도·중복장애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자료를 중심으로 표준 보육 과정과 영·유아의 수학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활동이 신체활동 및 감각·지각 활동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신의 수업을 돌아보며 과연 이러한 수업이 학생들의 수학능력 발달에 적절하고 타당한가, 그리고 교과로서의 수학 수업에 부합하는가를 끊임없이 묻게 된다고 하였다.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로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부담감을 함께 제기하며, 학교 수준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함께 제시되기를 희망하였다. 현재 지적장애 특수학교의 중도·중복장애 학생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는 점과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할 때 당장의 교육과정 개선이 불가능하다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화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 정도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해야 하는 학생 또한 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교육과정이 지적장애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으로 인식되는 기존의 관행 또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초등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수학과 교육과정 적용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그러한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수학과 교육과정 차별화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로서의 실천적인 행위이자 이를 통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의 질 높은 수학교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기본교육과정은 공통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대안적인 성격의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지적장애 특수학교에 기본교육과정 적용이 불가능한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음을 확인한 바, 기본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 내용의 개선과 더불어 특히 일반교육과정과 같이 학년 군으로 제시된 기본교육과정의 체제 또한 성취기준 목록화 등과 같은 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이해란, 이경진, 2019).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은 교사들의 교육과정의 실천적 행위를 그들이 처한 맥락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수학교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탐구하는 데 있다. 연구자와 참여자들 간의 오래된 신뢰 관계로 인해 그들의 내러티브를 보다 심도 있게 들을 수 있었지만, 반면에 그들의 목소리에 연구자의 주관이 완벽하게 배제되지 못할 수 있음은 본 연구가 갖는 한계일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두 명의 초등특수교사들은 연령과 경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교육과정과 교과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차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학교 밖 교사공동체에서 교육과정과 수업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실천해온 4년이라는 시간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 변인을 가진 교사들의 경험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교육과정의 차별적 적용을 통한 학생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차별화된 수학과 교육과정 적용을 통한 학생들의 경험과 배움에 관한 탐구도 함께 이뤄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Ahn, S. W., & Park, B. D., & Kim, J. E., & Choi, S. B. (2014). An Exploration on Appropriacy of Curriculum in Training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9(2), 275-295.
[안성우, 박병오, 김정은, 최상배 (2014). 특수교육교원 양성 교육과정 적절성 탐색. **특수교육학연구**, 49(2), 275-295.]
-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2019). Basic Plan for School Innovation in 2019.
[부산광역시교육청 (2019). 2019학년도 학교혁신 기본 계획.]
- Chae, K. E. (2008). Study On The Circumstance Of Mathematics Education In Special Schools For The Hearing Impaired - On Secondary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채경은 (2008). 청각장애 특수학교의 수학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중등교육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o, E. J. (2014). The Experiences on School Life of Students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Who were Transferred from a General School to a Special School. Unpublished master 's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조은주 (2014).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환한 경도 정신지체 학생의 학교생활 경험.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hung, H. S. (2009). A Study on the Analysis of Instruction in SpecialSchools for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정해시 (2009).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수업분석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Ham, M. A., & Jeon, B. U. (2018). Instructional Criticism on Mathematics Subject of Teacher in Special School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11*(1), 1-33.
[함미애, 전병운 (2018). 지적장애 특수학교 교사의 수학 교과 수업 비평.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1**(1), 1-33.]
- Han, K. I., & Han, K. H. (2019). Awareness, Current Status and Support Request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on Curriculum Reconstruction and Performance Assessment of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9*(2), 271-295.
[한경임, 한경화 (2019). 교육과정 재구성 과 학생 수행평가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과 실태 및 지원요구. **교육혁신연구, 29**(2), 271-295.]
- Hong, Y. S. (2019). Narrative Inquiry as Relational Research. *Journal of Qualitative Inquiry, 5*(1), 81-10.
[홍영숙 (2019). '관계적 탐구'로서의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5**(1), 81-107.]
- Jeong, Y. M. (2006). A Study on the Circumstance of Mathematics Education in Special Schools for the Visually Impaired On secondary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정유미 (2006). 시각장애 특수학교의 수학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Kim, D. H., Kim, S. W., & Park, S. Y. (2000). An Exploratory Study for Developing the Evaluation Criteria on Differentiated Curriculum Evalu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18*(1), 299-326.
[김대현, 김석우, 박소영 (2000). 수준별 교육과정 평가 준거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교육과정연구, 18**(1), 299-326.]
- Kim, D. J. (1998). Differential Curriculum .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20*(1), 121-141.
[김두정 (1998). 운암 장대희 박사 정년기념 논총 : 교육과정의 차별화. **교육연구논총, 20**(1), 121-141.]
- Kim, H. G. (2012). The Professionalism and competency in the subject's instruction of special education teachers for the students with disabil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5*(2), 59-78.
[김희규 (2012). 특수교육 교사의 교과 지도 역량 강화 방안.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5**(2), 59-78.]
- Kim, H. L. (2011). Practices and Implication of Multiple Curriculum in Special School for Physical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김하림 (2011). 지체장애 특수학교 학급 내 복수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Kim, J. Y., & Kim, E. J. (2013). A Study about the School Level Curriculum Organization Plan of Students with Severe · Multiple Disabilities According to 2011 Revised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5*(2), 105-128.
[김정연, 김은주 (2013). 2011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중도 · 중복장애 학생의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지적장애연구, 15**(2), 105-128.]

***A Narrative Inquiry Study on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s of
Differentiating Mathematics Curriculum in Special Elementary School for Intellectual Disabilities*** 17

- Kwon, S. W. (2005) A Study on key Characteristics of School-based Curriculum Management as Reconstructing. *Special Education and Rehabilitation Science Research*, 44(2), 1-26.
[권순우 (2005). 교육과정 재구조화에 따른 학교 중심 교육과정 운영상의 주요 특성 연구 : A학교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4(2), 1~26.]
- Lee, B. H. & Shin, H. G.(2004). Implication of realistic mathematics education on mathematics education for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39(2), 123-138.
[이병혁, 신현기 (2004). 현실적 수학교육이 학습장애학생의 수학교육에 주는 함의. **특수교육학연구**, 39(2), 123-138.]
- Lee, N. H. (2004). Study on the mathematics instruction in the special class of the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이남호 (2004). 초등 특수학급 수학 교과교육 실태 조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Lee, H. R. & Lee, K. J. (2019). A Narrative Inquiry on Special Education Teachers' Experience of Implementation in Integrated Subjec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7), 237-245.
[이해란, 이경진 (2019). 특수교사의 통합교과교육과정 실행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9(7), 237-245.]
- Lee, H. S., & Myeong, K. M. (2008). Promoting the Effectiveness of Level-Based Curriculum Operation in Deaf School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for Curriculum and Instruction*. 1(1), 49-69.
[이현수, 명경미 (2008). 청각장애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실태와 효율화 방안.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1), 49-69.]
- Lee, H. W. (2014). Action Research on the Building of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through the Learning Community System.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이홍우 (2014). 배움의 공동체 방식의 교사학습공동체 구축에 한 실행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Ministry of Education. (2019).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2019.
[교육부 (2015). 2019 특수교육통계.]
- Ministry of Education.(2015). 2015 revision Special Education Curriculum. Proclam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2015-811.
[교육부 (2015).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고시 제2015-81호.]
- Park, Y. K., & Baek, S. S. (2019). The Effect Analysis of Researches on Elementary School Disability Awareness Education: Meta-Analysi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3), 735-755.
[박영근, 백상수 (2019). 초등학생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연구의 효과 분석: 메타분석 활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3), 735-755.]
- Rhie, S. J. (2013). Teachers' Narrative of Curriculum Implementation for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6(1), 19-42.

[이숙정 (2013). 중도·중복장애 학생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특수학교 교사의 내러티브 분석.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6(1), 19-42.]

Sin, S. Y., & Park, C. U. (2018).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Needs of School-level Curriculum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s Operating Curriculum : Focused on Busan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5(2), 47-73.

[신서영, 박창언 (2018). 기본교육과정의 학교 수준 교육과정 자율화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과 요구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25(2), 47-73.]

<국문 초록>

지적장애 특수학교 초등특수교사의 수학과 교육과정 차별화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이 해 란 · 박 창 언 · 양 진 숙

[목적] 본 연구는 다양한 장애 특성과 학습 수준의 격차로 인해 교육과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초등특수교사들의 경험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방법]** 이와 관련한 연구문제는 지적장애 특수학교 초등특수교사의 수학과 교육과정 차별화의 의미는 무엇인가이다. 이를 위해 실제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특수교사들의 수학과 교육과정 차별화의 경험을 내러티브(narrative inquiry) 방법으로 탐구하였다. **[결과]** 연구결과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의 교육적 요구와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집단을 재구조화하였다. 둘째, 학습 집단에 따라 교육과정 재구조화하고 차별적으로 적용하였지만, 중도·중복 장애학생에 대한 수학 수업의 어려움을 제기하며 기본교육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셋째, 수학 교과와 수학능력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느껴 교사공동체를 통해 수학 교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결론]** 지적장애 특수학교의 수학교육 개선을 위해 교육과정 및 학습 환경의 재구조화, 중도·중복 장애학생에 대한 수학 교과의 의미 제고, 교사들의 교과 전문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차별화에 관한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 지적장애특수학교, 초등특수교사, 수학과, 교육과정 차별화

논문 접수(Received): 2019. 11. 07. / 심사 시작(Examined): 2019. 11. 07. / 게재 확정(Accepted): 2019. 12. 26.